



[라이프] 고물가에 1인가구도 대용량 제품 산다 L2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과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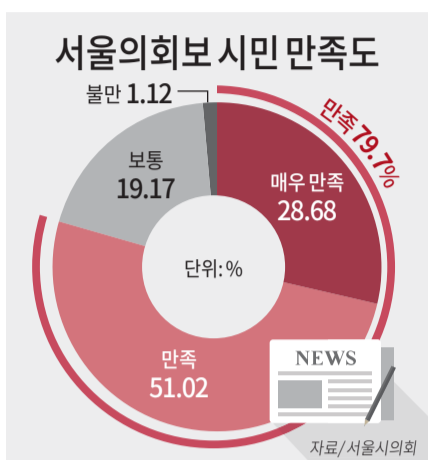
‘아이맘택시’ 등 생활 꿀정보 가득... 서울의회보 만족도 높아

서울시의회, 한달에 두번 소식지 발행 만족도 80%... 생활정보 코너 인기 좋은 정책 칭찬하는 독자 기고글도

서울시의회가 한달에 두번 발행하는 소식지인 ‘서울의회보’의 시민 만족도가 8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회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로는 ‘생활정보’가 꼽혔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민 2683명을 대상으로 서울의회보 만족도 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32%가 ‘서울의회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79.7%가 기사의 내용과 구성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28.68%·만족 51.02%)고 응답했다. ‘보통’은



19.17%, ‘불만’은 0.91%, ‘매우 불만’은 0.21%로 집계됐다.

재미있는 코너(최대 2개 복수응답)를 묻는 항목에서는 축제·도시·영화 등 문화소개와 법률상식, 건강지식을 다루는 ‘생활정보’가 31.26%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시기별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기획 기사’(25.75%), 서울시의회 정례회·임시회·상임위원회 활동을 소개하는 ‘의정활동’(21.46%), 각 의원별 활동 사항을 홍보하는 ‘의원동정’(21.14%)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9.68%는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서울의회보를 비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장소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35.9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하철 역사·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32.94%), 은행·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18.27%), 도서관(7.49%),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4.89%) 순이었다.

3일 정오 기준 서울의회보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로는 ‘은평구 아이맘택시’ 관련 독자 기고글이 꼽혔다. 아이맘택시는 임신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 중 각종 검진과 예방접종의 사유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구민들을 위해 구가 2020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정책이다.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전용 아이맘택시는 유모차를 탑재할 수 있도록 대형승합(카니발) 차량으로 운행되며, 카시트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갖췄다. 은평구 거주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유아가 가정이면 하루 2회, 연 10회까지 아이맘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백가혜씨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시기는 아이가 아플 때다. 영유아인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예방접종은 물론 감기나 잦은 병치레로 병원을 드나드는 일은 일상이 됐다”면서 “차를 끌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한 아이맘택시가 큰 도움이

됐다”고 칭찬했다.

이어 “아이 키우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도들은 양육자들에게 큰 의지가 돼 준다”며 “양육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들로 엄마와 아이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시의회는 서울의회보 배부처 3만 6700곳에서 오는 5일까지 시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의회보 만족도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의회는 “서울의회보 발행 형태를 잡지에서 신문으로 변경한 이후 그간 발행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조사 결과는 서울의회보 발간 개선 및 2023년 기획 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공공어린이집 498개소 에너지 효율 개선 ‘정조대왕 능행차’ 3년만에 재현된다

10년 넘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내년까지 100곳 ‘저탄소 건물’ 전환

서울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968억원을 투입해 공공어린이집 498개소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그린리모델링)은 고성능 단열·창호로 보강하고, 고효율 냉방방시설과 친환경 환기시스템 등을 설치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

이는 프로젝트다.

시 관계자는 “공공어린이집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69%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어린이집의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어린이집 157곳에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시는 연간 약 2억32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해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공어린이집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 공사를 완료한 공공어린이집 중 광진구 군자어린이집, 마포구 샘물어린이집, 종로구 조은어린이집 3곳은 모두 30% 이상의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54개소, 내년까지 100곳의 공공어린이집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수원시-화성시 공동재현 8일부터 이틀간 창덕궁~용릉 행차

서울시는 수원시, 화성시와 이달 8~9일 창덕궁부터 수원화성을 거쳐 용릉까지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園幸)을 재현하는 국내 최대 역사문화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되는 올해 행사는 창덕궁에서 용릉까지 총 59.2km 중 43.5km를 재현한다. 서울은 창덕궁에서 시흥5동 주민센터까지 일부 구간, 수원·화성은 안양에서 화성(용릉)까지 전구간이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눈에여겨볼 점은 디지털로 되살아난



화성 구간 행렬 모습. /서울시

‘미디어 배다리’다. 정조대왕 행렬이 한강을 건널 때 사용한 배다리를 LED 기술로 구현했다고 시는 전했다.

행사 당일 서울, 수원, 화성 시내 일부 구간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시는 능행차 행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4년 만에 열린 신비의 숲... ‘광릉숲축제’ 개최

남양주시, 8~9일 비공개 지역 개방

남양주시는 오는 10월 8~9일 이틀간 진접읍 광릉숲 일대에서 ‘제17회 광릉숲축제’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10월 8일 오전 10시 봉선사 일주문 주차장에서 열리며 ▲드로잉 퍼포먼스 팀 ‘페인터즈’ ▲가수 ‘나태주’ ▲K-POP 태권도 시범단 ‘케이타이거즈’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광릉숲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평소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하여 생태환경을 관리하는 구역이다. 하지만, 일 년에 딱 한번 ‘광릉숲축제’ 기간에만 숲을 공개해 깊어가는 가을 광릉숲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왔다.

특히, 이번 축제는 광릉숲을 주제로 다채로운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광릉숲 안과 밖에서 펼쳐지는 ▲소규모 버스공연 ‘광릉숲페이지’ ▲숲속에서의 체험활동 ‘광릉숲만지작’ ▲걷다가 힘들면 쉬어갈 수 있는 ‘광릉숲휴게소’ 등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청년인생설계학교’의 3차 참여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자신만의 흥미와 강점, 행동유형을 확인한 후 자기이해도와 진로설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는 본인의 진로 고민에 따라 ▲나의 강점을 찾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라이프 코스’ ▲사회초년생 특화 과정 ‘커리어 코스’ ▲중간 관리자 대상 ‘리더십 코스’ 총 3가지 과정 중 한 가지를 택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인생설계학교’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청년인생설계학교’의 3차 참여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자신만의 흥미와 강점, 행동유형을 확인한 후 자기이해도와 진로설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청년인생설계학교’의 3차 참여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자신만의 흥미와 강점, 행동유형을 확인한 후 자기이해도와 진로설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0 | 해질 / 18:11

10월 4일 (화) 음력 : 9월 9일

수도권 날씨 17~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6/20, 동두천 16/19, 가평 18/20, 파주 15/20, 서울 17/20, 양평 19/20, 인천 16/19, 수원 17/20, 용인 17/20, 평택 18/20, 백령도 13/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영혼에 살인죄 씌울 수 없다”...러시아 20대 래퍼 ‘극단 선택’ ▲브라질 대선, 룰라 1위했지만 과반 미달...30일 결선 투표 /사진 뉴시스

▲허리케인 올린, 멕시코 해안 상륙...태평양 해안도시 휴교령 ▲우간다 보건료료업계 65명 에볼라 감염으로 격리



▲日증시, 미 주가 하락부담에 속락...장 초반 낙폭 300포인트 넘어 ▲감세안 밀어붙인 兪총리...보수당은 의회 처리 지연 압박 /사진 뉴시스